

천사마을 축제사업을 통한 근린재생 파트너십 사례 고찰

A Case Study of the Neighbourhood Regeneration Partnership
for the Angel Village Festival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제1저자)
Yeunsook Lee Prof., Dept. of Interior Architecture and Built Environment,
Yonsei Univ.(Primary Author)
(yeunsooklee@yonsei.ac.kr)

박성남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연구원(교신저자)
Sungnam Park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Symbiotic Life-TECH,
Yonsei Univ.(Corresponding Author)
(vinyljaco@gmail.com)

박경남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 연구교수
Kyungnan Park Research Prof., Institute of Symbiotic Life-TECH,
Yonsei Univ.
(knan.park@gmail.com)

목 차

I. 서론

II. 이론 고찰

1. 근린재생에서의 파트너십과 협업 주체
2. 도시재생 파트너십 모델과 유형
3. 파트너십 협업의 장점 및 관리
4. 도시재생 파트너십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III. 연구대상 및 자료

1. 근린재생 사례의 선정
2. 근린재생 프로그램의 선정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IV.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추진과정

1. 천사마을 축제 아이디어의 배경
2. 주민 조직화와 제1회 축제 개최
3. 주민 교육과 축제 동아리 조직
4.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 조직화와 역량 강화
5. 제2회 천사마을 축제 개최
6. 제2회 천사마을 축제 이후

V. 분석 및 토의

1.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십의 중요성
2.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들의 협력 네트워크
3. 제3회 천사마을 축제사업 거버넌스 체계
4. 더 나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시사점

VI. 결론

I. 서론

근린재생에 있어 공공이나 단독의 재생 담당기구가 전담하는 접근 방식은 쇠퇴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기관들이 협업하는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Roberts and Sykes, 2000). 근린재생에 있어서 협업에 대한 강조는 몇 가지 타당성을 지닌다. 첫째, 근린재생에서 주민들의 참여 요구가 증대되었다. 둘째, 근린재생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복합적인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근린재생에 있어 지속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근린재생 경험이 비교적 축적된 영국의 경우 근린재생에 있어 지역사회 포함과 지역사회 역량 구축 및 권한 부여가 강조되고 있다(SEU, 2001; Evans and Jones, 2008). 또한 근린재생의 실행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근린재생 파트너십을 근린재생 과정에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다(Akinson, 2003; DCLG, 2008, 2010).

최근 국내 도시재생 정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2013년 6월 4일 공포되었으며, 근린재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켜 국가 R&D 도시재생 연구를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R&D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전주와 창원에 테스트베드(이하 'TB')를 운영하고 있다. TB 운영의 구체적 목적은 쇠퇴 지역의 현장에 대하여 도시재생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도

출하여 3년간의 시범 운영 경험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기법들을 향후 도시재생 실행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전주 TB 근린재생 사업 중 하나인 천사마을 축제사업에서 파트너십 형성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근린재생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국내 근린재생의 파트너십 체계를 토의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협업 파트너십 발전 과정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근린재생에 있어 파트너십의 확장과 중요성에 대한 토의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실증 연구를 통해 근린재생 파트너십에 있어 다양한 협업 주체의 고려와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최근의 국내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파트너십 형성 과정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 고찰

1. 근린재생에서의 파트너십과 협업 주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린재생에서 파트너십 접근은 재생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사회적 포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사람과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Carley et al. 2002; Evans and Jones, 2008). 또한 근린재생에 있어 더 나은 지역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지방 정부나 단독 재생 기구가 아닌 협업 체계를 구축한 다양한 주체가 대응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다(Roberts and Sykes, 2000; Carley et al. 2002; Akinson, 2003). 근린재생의 파트너십에 있어 Carley et al.(2002: 47)은 공공 부문, 민간 비즈니스 부문, 커뮤니티 부문, 자발

적 시민 사회 부문으로 협업 주체자들을 구분하였다.

2. 도시재생 파트너십 모델과 유형

Mackintosh(1992)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파트너십 형성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파트너십 모델을 구상하였다. 시너지 모델은 파트너들 사이의 지식, 자원, 접근 방식과 운영 문화들을 결합함으로써, 파트너 조직들이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함께 성취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예산 확장 모델은 협업을 통해 혼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부가적 재원에 접근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변환 모델은 파트너들이 다른 파트너들의 작업 방법들에 노출됨으로써 발전과 변화의 지속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 혁신을 자극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Roberts and Sykes(2000: 45-47)는 파트너십은 공유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 구조와 정책 생성을 위한 구조의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며, 파트너십을 각각 다른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 시스템 파트너십은 전략적 정책 입안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적 차원의 쇠퇴 문제들을 다루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프로그램 파트너십은 도시재생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이슈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술적 파트너십은 개별의 물리적 재생 사업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단계적 구조로 유용하다.

Stewart and Snape(1995: 47)는 파트너십을 목적과 특성, 파트너들 간의 관계, 파트너십 특정 활동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조직적 모델로 구분하였다. 촉진 파트너십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 간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협상하기 위한 파트너십이다. 조정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나 그 관련 기구에 의해 수행된 사업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파트너십이다.

실행 파트너십은 주로 동의를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협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파트너십이다. 대부분의 파트너십은 이 세 가지 유형의 파트너십 모델의 요소들을 함께 지니고 있다.

3. 파트너십 협업의 장점 및 관리

Geddes(1997)는 파트너십 협업으로 인해 두 가지 주요 이점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파트너십은 공공, 민간, 시민 부문과 지역 커뮤니티 간의 정책과 자원의 조정, 협동, 통합을 증진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은 지역의 특성들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을 가능하게 해주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 그룹들의 다양한 필요에 대한 대응과 차별화를 폭넓게 유도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Wilson and Charlton(1997)은 파트너십의 관리 과정을 다섯 단계로 제안하였다. 1단계는 파트너들이 공통된 필요의 상호 인식을 통해 모이거나 공공 자금을 얻기 위한 협조 체제로 모이는 단계다. 이때 신뢰 구축의 과정과 훈련이 중요하다. 2단계는 대화와 토의의 과정을 통해, 파트너들은 공통의 기반을 설립하고 비전과 임무를 합의하는 단계다. 이때 파트너들은 필요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파트너십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하는 업무의 범위를 설정한다. 3단계는 파트너십의 공식적 프레임워크와 조직 구조가 정립되는 단계다. 파트너들은 특정한 목표와 목적들을 설정하고 감시를 위한 관리팀을 지정한다. 4단계는 파트너십이 실행 계획을 수행하는 단계다. 이때, 가능한 모든 파트너의 포함을 지속하고, 정책 형성, 평가, 파트너십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유지한다. 5단계는 파트너들이 실행 종료 후 향후 전

략을 계획하는 단계로 새로운 목표의 개발, 파트너십 협업의 유지를 위한 계획, 파트너십 자산에 대한 커뮤니티로의 환원 등의 활동들을 포함한다.

4. 도시재생 파트너십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Coaffee and Deas(2008)는 영국의 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적용된 두 지역의 근린재생 사례의 파트너십을 비교하였다. 사례 연구에 있어 하나는 성공적으로, 다른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파트너십의 비교를 통해 내부 파트너들 사이, 외부 파트너십에 대한 협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트너십의 집중 효과를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과도한 모임으로 인한 시간 소모와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 모색을 저해하는 과도한 성과 목표치 설정을 지적하였다.

Kort and Klijn(2013)은 도시재생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파트너들 간의 신뢰가 도시재생의 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시 당국과의 신뢰는 보다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보 공유 및 협의 등 민주적 적법성의 엄격하지 않는 형식이 책임 메커니즘의 정립 같은 엄격한 형식에 비해 도시재생의 성과를 성취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Lever(2011)는 영국의 도시재생에 있어 파트너십 협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도시재생 파트너십이 주민들의 역량 구축 과정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실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도시재생 파트너십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공통적으로 향후 국내 도시재생에서의 파트너십 접근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선진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십 체계를 통해 국내 도시재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근린재생 관련 사

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들 또한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근린재생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김우락·구자훈(2011)은 ‘서울 휴먼타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공공, 전문가, 주민 협의체 간 파트너십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측정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최호운 외(2011)는 ‘수원장안문거북시장 만들기 사업’의 주체인 상인 및 주민 부문,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 부문, 행정지원을 위한 공공 부문의 협업 과정 분석을 통해 지역상가 재생에서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권정주 외(2012)는 ‘청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추진 주체를 지역주민, 지자체, 시의회, 연구진, 지역전문가로 구분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추진 협의회의 협력 추진 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행정 중심의 도시재생이 추진되었으나, 점차로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협업 체계로 발전되었음을 분석하면서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III. 연구대상 및 자료

1. 근린재생 사례의 선정

연구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근린재생을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십 형성 과정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파트너십 형성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근린재생 사례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근린재생 사례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쇠퇴한 주거지역의 재생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근린재생 사업으로 근린에 대한 재생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를 지녀야 한다. 둘째, 사업 추진 현황이 근린재생의 거버넌스를 파악하거나 장래의 추진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근

린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이 강조된 사례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만족하는 전주 TB의 도시재생을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전주 TB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주 TB 지역은 전주시 노송동, 인후 1동, 인후 2동, 중앙동, 진북동 5개 동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전주시청과 연결한 구시가지로 면적은 약 173만 9천㎡이며, 8,27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근린재생사업지구로 설정된 주거지구는 1960~1970년대 사이에 조성된 단독주거지로 전주 구도심의 대표적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상가지구에는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중앙상가가 있으며 노송천 복원구간을 포함하고 있다(이연숙 외, 2013).

2. 근린재생 프로그램의 선정

전주 TB의 도시재생 사업은 9개의 클러스터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어,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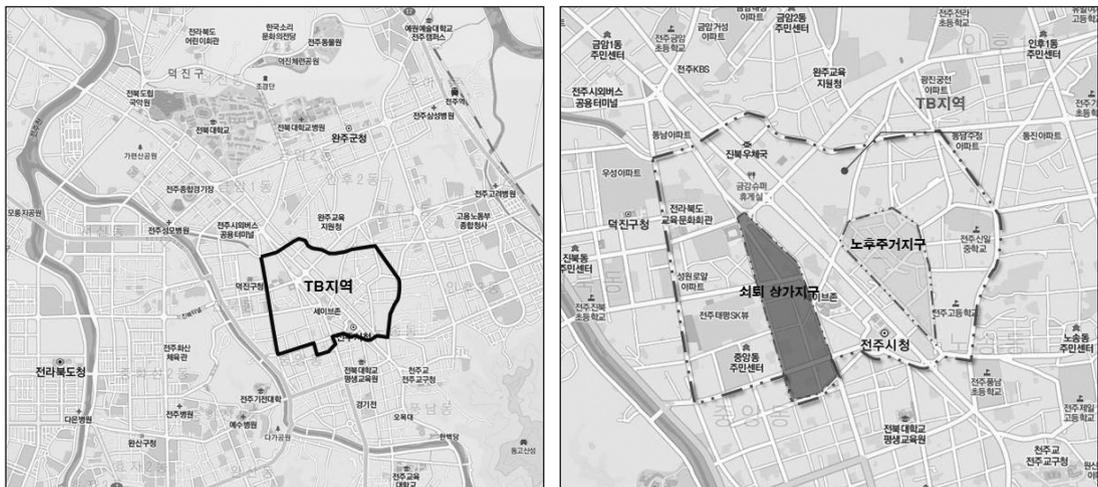
이미 진행된 성과가 있는 근린재생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초점을 맞추어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9개의 클러스터 사업 분류 중 하나인 ‘주민주도 마을 활성화 사업’ 중 ‘천사마을 축제사업’을 선정하였다.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선정 이유는 이미 2회의 축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 조직의 활동이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어진 사업이므로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 대한 토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제의 개최를 근린재생 사업의 실행 결과물로 본다면, Wilson and Charlton(1997)이 제시한 축제 준비, 실행 및 실행 이후 지속 과정으로 구성된 일련의 파트너십 관리 과정을 이미 두 차례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 연구 대상으로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선정은 두 차례의 파트너십 관리 과정을 제3회 축제 실행 준비를 위한 파트너십 관리 과정과 비교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다음으로 자료 수집을 위한 세부 이슈들을 천사마을

그림 1 _ 전주 TB의 공간적 범위



자료: 이연숙 외, 2012, p88.

축제의 추진 과정, 주민 조직의 형성 및 발전 과정, 다른 부문과의 협력관계 구축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자료는 전주 TB 기법적용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및 연구진에 의해서 현지참여 연구를 통해 구축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파트너십 구조 파악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분류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를 위해 마을 축제와 관련된 주요 협업 파트너들을 조사하였으며, 협업 파트너십을 위한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근린재생 파트너십 협업 주체의 구분에서는 Carley et al. (2002)의 구분을 적용하여 커뮤니티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그리고 자발적 참여가 강조되는 시민사회 부문으로의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트너십 협업 체계를 도식화하였다. 전주 천사마을 축제사업 사례의 파트너십 형성 과정과 파트너십 체계의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의 근린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토의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IV.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추진과정

1. 천사마을 축제 아이디어의 배경

전주 TB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문화재나 기념비적인 자산 등 자긍심을 가질 자원이 없는 한편, 성미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근린에 연접하여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근린 재생을 통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전주 TB 지역에는 10년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를 지속해오며 ‘얼굴 없는 천사’라고 인식되고 있는 익명의 기부문화가 있었다. 연구진은 지역 내 사회적 자산인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문화에 착안하여 지역적 자부심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전주 TB

지역을 ‘천사마을’로 인식되고 있는 이 마을의 특성을 공식적으로 더욱 부각시키고, 기부문화를 지역의 정체성 고양을 위한 근린재생의 문화적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주민 조직화와 제1회 축제 개최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11년 4월 25일 개소 후 센터 홍보 및 ‘지역공동체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TB 지역 공동 활동을 위한 주민 조직화를 지원하였다. 주민 조직화 지원 과정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근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로 발전되었으며, 나눔을 통한 생활 축제로서 마을 축제 개최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2011년 7월 노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축제제안 설명회를 시작으로 TB 지역 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마을 축제 구상 설명회를 하였다. 이 결과 제1회 마을 축제의 추진을 위해 노송동 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4개 동 위원회가 합류하여 주민 리더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센터가 축제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를 위한 세부 분과로 전시분과, 푸드넷분과, 문화공연분과, 복지분과, 홍보분과를 포함하는 5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분과별 실행위원을 선정하여 개별 모임을 진행하였다. 축제조직위원회와 센터는 축제 기획과 실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공유하였으며, 5개 동 위원회 주민 대표들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서 지원한 교육과 정인 축제학습과정을 통해 축제 추진을 위한 협의를 수행하였다.

2011년 9월 23일에는 축제조직위원회와 센터가 협력하여 ‘제1회 천년전주 천사마을 천년사랑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얼굴 없는 천사의 마을’을 콘셉트로 하여 나눔과 사랑의 실천에 주민 모두가 동

참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였다. 축제의 행사 내용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이불빨래 등의 빨래 봉사, 우리 동네 극장운영, 나눔장터 진행, 방문진료 활동 등 문화행사 및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3. 주민 교육과 축제 동아리 조직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 개최 후 축제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마을 축제 및 향후 활동을 위해서는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동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센터는 제1회 축제조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을 추가 모집하여 마을 축제 기획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하호호 축제학교’라는 이름으로 8회의 주민학습을 지원하였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8주 동안의 교육 프로그램인 ‘하하호호 축제학교’가 종료된 후,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자발적인 축제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천사마을 축제사업을 위한 제1회 ‘천사마을 축제조직위원회’가 학습과 활동을 지속화하기 위해 동아리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축제사업과 관련한 조직, 학습,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 발족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축제 동아리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는 축제 동아리 조직화, 활동,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2회의 축제 동아리 정기모임에 대한 운영 지원을 지속하였다.

4.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 조직화와 역량 강화

2012년에는 동아리 정기회의를 10회 진행하면서 5월부터 제2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조직위원회 발족을 추진하였으며, 4월과 5월에 TB 지역 5개 동

별로 ‘작은 축제’ 개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의 경우 제1회 축제조직위원회에 포함된 주민대표들뿐 아니라 TB 지역 5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발굴하여 구성원을 확대 재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축제조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TB 지역 5개 동 주민센터에 행정 협력을 유도하였다. TB 지역 5개 동 주민센터에 축제조직위원회 참여자 모집을 협조 요청하여 각 동의 주민센터 동장을 행정자문위원으로, 시민계장을 행정실행위원으로 위촉하였다. 2012년 6월에는 행정자문위원 5인, 행정실행위원 5인, 조직위원 34인을 포함 총 44인으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센터는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 발족식 개최를 지원하였다.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는 TB 지역 5개 동 주민대표들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축제 비전문가 집단이었다. 따라서 축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역량 구축과정이 필요하였다. 센터 및 연구진과 ‘지역공동체 기반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취지를 공유한 축제 전문가가 TB 지역의 장소성 고양을 위한 축제 워크숍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였다. 매 회차별 축제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방식은 축제조직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였다.

센터는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가 월 2회씩 8차에 걸친 축제 워크숍을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활동 및 학습을 지원하였으며, 축제조직위원회는 워크숍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 및 실행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였다.

5. 제2회 천사마을 축제 개최

2012년 10월 4일 제2회 ‘천년전주 천년사랑 축제’는 제2회 축제조직위원회와 센터가 공동주관하는 행사

로 이루어졌다. 특히 센터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된 축제 기획안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축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2회 축제는 ‘당신도 천사가 될 수 있다’ 캠페인, ‘얼굴 없는 천사 글짓기·그림 공모전’ 등 총 1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세부 프로그램의 진행은 축제조직위원회, 센터, 지원 공공기관 및 축제 관련 민간 기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TB 지역 5개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행정 협력 및 주민 홍보를 지원하였다. NGO인 ‘마을발전소 맥’은 축제 자문 및 축제 워크숍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였고, 전주시평생학습센터는 축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축제 프로그램 ‘천사의 한술밥’과 ‘천사의 섬김’을 주관하였으며, 행사장 천막 10개, 의자 300개를 지원하였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는 축제 프로그램 ‘우리민속 놀이 한마당’을, ‘전주시 해피하우스 센터’는 축제 프로그램 ‘천사마을 집수리 상담소’를 주관하였다.

공연, 무대음향, 부대행사 진행, 점심 배식 등 축제의 모든 행사 참가자는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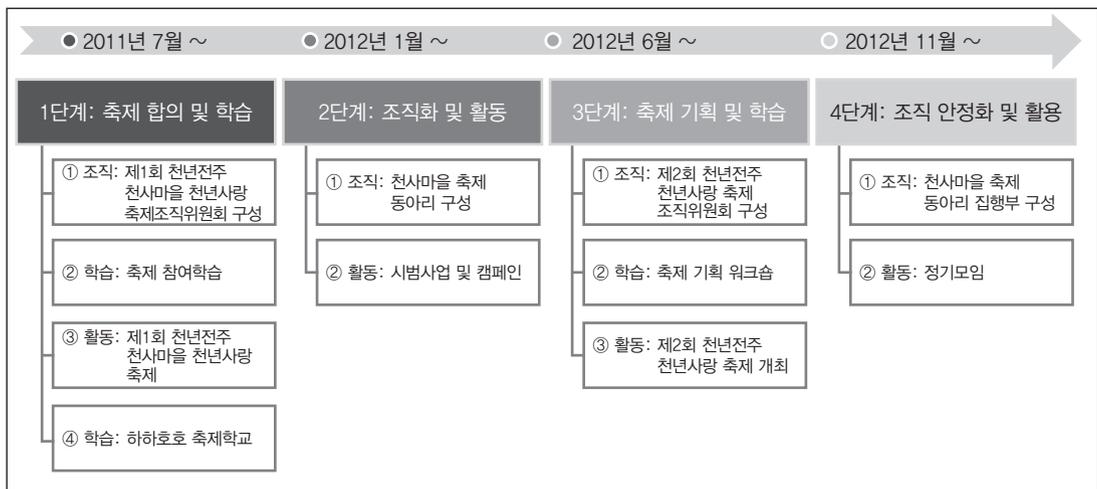
참여인원 650명, 재능기부 278명, 네트워크 단체 28개가 참여하였다. 물품 기부는 48건 800만 원 상당이며, 현금 기부는 39건 약 140만 원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6. 제2회 천사마을 축제 이후

제2차 축제가 끝나고 축제조직위원회는 다시 자발적 주민 조직인 축제 동아리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축제 동아리가 축제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축제 동아리 대표가 축제조직위원장을 겸임하도록 축제 동아리의 위상이 정립되었다(〈그림 2〉 참조). 2013년 1월 동아리 집행부 선출 후 정기 모임은 센터와는 별도로 자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축제 동아리는 2013년에 작은 축제를 2회 개최하였다. 4월 작은 축제는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 대상 문화복지를 취지로 개최하였다. 5월 작은 축제는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홍보를 취지로 개최되었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 저금통 1천 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13년 7월 10일에는 제3회 천사마을 축제조직

그림 2 _ 천사 축제를 위한 활동



자료: 이연숙 외, 2012, p110.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제3회 축제는 2013년 10월 4일 전주 풍남초등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3회 축제는 지역 교육기관에서 개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의 문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제3회 천사마을 축제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으로 5개 동 주민대표 28인, 고문으로 지역조직 대표 4인, 자문위원으로 행정 자문 및 지원을 위한 공무원 10인, 실행자문으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를 포함하는 12개 기관의 대표자가 위촉되었다.

천사마을 축제는 2회 축제까지 ‘얼굴 없는 천사’의 노송동 이미지 고착화로 인해 타 인근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송동 외 4개 동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으며, 기부문화가 노송동뿐 아니라 전주시 차원의 사회적·문화적 자산임을 강조하고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V. 분석 및 토의

1.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십의 중요성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십은 축제의 발전이라는 목적과 축제 실행을 위해 협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 파트너십’과 ‘실행 파트너십’의 조직적 모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Roberts and Sykes, 2000; Stewart and Snape, 1995). 천사마을 축제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발전된 과정을 살펴보면, 센터는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는 축제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지역 주민이 축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지역 주민의 조직화를 지원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축제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파트너십 확

장이 요구되었다.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발전을 위한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축제 전문가와의 협업은 ‘변환 모델’이 설명하는바 전문가의 작업방식들에 노출됨으로써 축제조직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혁신을 자극하였다. 또한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십은 ‘예산 확장 모델’이 설명하는바 부가적 재원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례로,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무료급식의 경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사랑의 희망열차’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부가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였다(이연숙 외, 2013).

또한 천사마을 축제는 주민 조직이나 센터 등 하나의 주체가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성격의 근린재생 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십은 ‘시너지 모델’이 설명하는바 천사마을 축제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협업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천사마을 축제 파트너들의 협력 네트워크

근린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다양한 파트너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주 TB의 천사마을 축제 사례는 근린재생을 위하여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사례로서 주민 조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의 협력을 통해 마을 축제라는 근린재생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 1회 마을 축제의 경우 주로 센터 및 연구진과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추진되었으나, 2회 마을 축제의 경우 13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협력 정도가 강화되었다. 현재까지 구축된 마을 축제사업의 주요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제3회 축제조직위원회의 구성은 다양한 구성원 간의 협력 관계가 마을 축제의 발전 과정

을 통해 더욱 폭 넓어지고 강화됐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표 1〉 참조).

3. 제3회 천사마을 축제사업 거버넌스 체계

사례 연구의 천사마을 축제사업은 지역사회 내 여러 분야의 파트너들 간 협력 네트워크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이므로 파트너십 구축과 주민들의 참여 유도는 매우 중요하였다. 천사마을 축제사업 거버넌스는 공공이 주도하는 접근이 아닌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파트너들을 커뮤니티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지역 커뮤니티 이외의 시민사회 부문으로 구분하여

협력 관계를 도식화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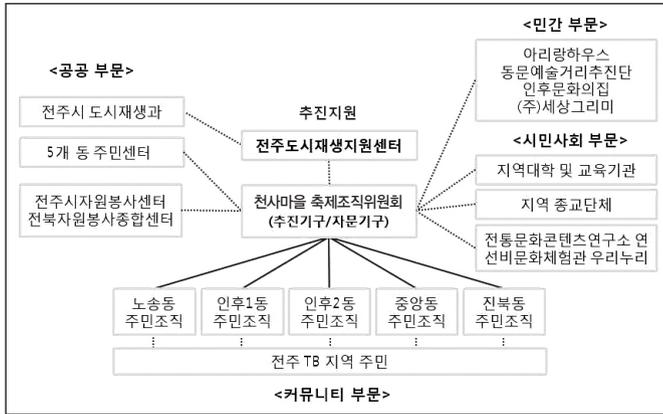
전주재생지원센터는 근린재생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별도 구분하였으며, 5개 동 주민대표들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부문, 5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공공 부문, 사업 실행을 위한 축제 자문 및 실행 파트너를 포함하는 민간 부문, 지역 교육기관 및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시민사회 부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축제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다.

표 1 _ 제3회 천사마을 축제조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파트너(2013년 7월 기준)

주요 파트너	부문				실행			기타사항 (제3회 축제조직위원회에 참여)
	커뮤니티	공공	민간	시민사회	협력사업	자문	추진조직	
노송동 주민조직	○						○	대표 11인
인후1동 주민조직	○						○	대표 3인
인후2동 주민조직	○						○	대표 7인
중앙동 주민조직	○						○	대표 6인
진북동 주민조직	○						○	대표 1인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			○	○		축제조직위원회 활동 지원
전주시 도시재생과		○						필요시 행정 지원
5개 동 주민센터		○				○		5개 동 동장 5인 및 각 동 지원 공무원 5인(자문), 주민홍보 지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	○		센터장(자문)
진북자원봉사종합센터		○			△	○		센터장(자문)
아리랑하우스 대표			○		△	○		대표(자문)
동문예술거리추진단			○		△	○		대표(자문)
인후문화의집			○		△	○		대표(자문)
(주)세상그림			○		△	○		대표(자문)
지역대학 및 교육기관				○		○		풍납초교 · 전주초교 교장, 풍납유치원 원장(자문)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연				○	○	○		대표(자문)
선비문화체험관 우리누리				○	△	○		대표(자문)
지역 종교단체				○	△	○		동현교회 담임목사(자문)

* △ 표기는 향후 축제 프로그램들이 구체화될 경우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계한 협력 사업 가능성이 높음을 표시함.

그림 3 _ 천사마을 축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부문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자발적 주민조직체들이 조직되고, 각 조직 대표들이 커뮤니티 연합체를 조직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공공 부문과 관련하여 전담기구가 협력하고 공식적인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심의·자문하며, 지역 서비스 공급을 하는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을 포함한다. 민간 부문과 관련하여 근린재생 사업을 위한 실행 파트너로서 영리, 비영리 사업체를 포함한다. 시민사회 부문과 관련하여 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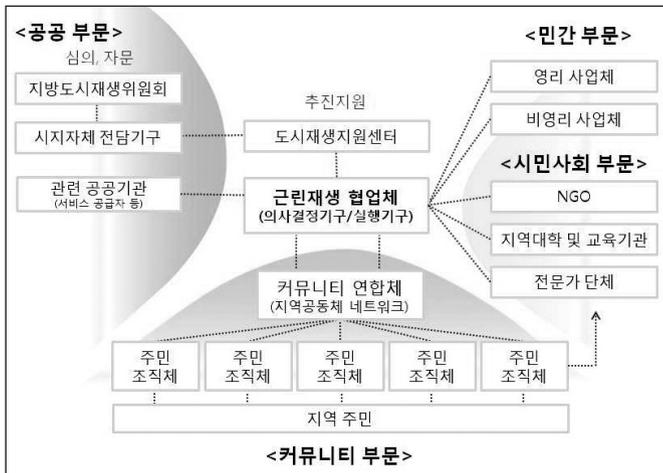
4. 더 나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시사점

1) 근린재생 파트너십 체계의 적용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는 근린재생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천사마을 축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근린재생 파트너십 체계를 구상하였다(그림 4) 참조. 도식화된 구상 모델은 커뮤니티 부문,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사회 부문의 협력을 강조한다. 부문별

지역대학, 전문가 단체를 포함하며 자문 및 협업 등을 통해 근린재생 실행에 도움을 준다. 주민 조직체에서 마을 기업이 활성화되면 마을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 부문의 협업 파트너로 발전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근린재생 사업의 추진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협업을 위한 의사결정 및 실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문별 핵심 파트너들의 대표들을 선출하여 근린재생 협업 조직으로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 협업체는 의사결정기구와 실행기구를 포함하도록 한다.

그림 4 _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구상된 근린재생 파트너십 체계



2) 주민 조직화의 중요성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주민 조직화와 조직체 구성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천사마을 축제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사례의 경우 5개 동 주민 조직이 축제의 의미에 공감하며 축제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며, 마을 축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의 조직화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근린재생 사업 초기에 주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기 제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 조직화는 주로 친밀감의 향유와 기대 이익의 두 가지 동인으로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례 연구의 동아리 활동과 같은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근린재생으로 인한 커뮤니티 혜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근린재생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린재생 초기에 자발적 주민 조직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5개 동의 주민센터는 주민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마을 축제사업을 함께 발전시켜 갔다. 특히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축제의 실행 지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주민 조직의 활동 및 소통의 공론장(arena)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는 「도시재생법」 제11조에 의해 설치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근린재생 사업의 실행 지원뿐 아니라, 커뮤니티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장, 의사소통의 공론장으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4) 각 부문 협업 관계자들 간의 협업

천사마을 축제의 경우 센터와 주민 조직뿐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이 축제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협업하였다. 다양한 파트너들 간 협업을 통한 협력적 계획 및 실행과정은 근린재생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파트너십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각 부문 파트너들의 정기적 미팅이 필요할 것이며, 근린재생 협의체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논문에서 구상한 근린재생 파트너십 체계에서 중심에 위치한 근린재생 협의체는 협업기구로서 가능하면 공공 부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의사결정권과 실행 추진을 위한 주도적 협의권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VI. 결론

전주 TB 지역 도시재생의 경우 근린재생을 위한 초기 구상 단계에서 ‘얼굴 없는 천사’라는 문화적 요소를 주제로 마을 축제를 발전해 나감으로써 주민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마을 축제를 위한 준비 조직으로 시작되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제1회 축제조직위원회는 두 차례의 축제를 거치면서 점차 발전되어 다양한 사업 실행 파트너와의 협업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전주 TB 천사마을 축제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협력 파트너십의 형성 과정은 근린재생을 위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의 근린재생은 그 과정에 참여 문화를 깊숙이 녹여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근린재생 파트너십은 지역 주민들을 근린재생 과정의 중심에 두며, 다양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과정을 통해 근린재생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실제로 근린재생을 위해 결속력 강한 협업 파트너십 구축은 시간이 소요되며 때로는 쉽지 않은 과정일지라도 근린재생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국내의 근린재생에 있어 파트너십의 강조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근린재생 과정상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하여 다양한 협업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Healey, 2005). 둘째, 협업 과정을 통해 자원의 조정 및 근린재생 전략에 대한 상호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협업 관계자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 관계자들의 역량 구축을 촉진할 것이다.

근린재생은 적용 지역의 특성 및 문맥이 모두 다르다. 본 논문의 한계는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파트너십 사례만을 다루고 있는바,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근린재생을 위한 파트너십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보편화된 모델로 전환하여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파트너십은 지역사회와 함께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근린재생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근린재생 파트너십 형성의 선행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부문의 협업 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핵심 주체로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국내의 도시재생에 있어 「도시재생법」이 201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선도 지역의 선정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따른 근린재생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Geddes(1997: 130)가 주장한 바처럼, 더욱 바람직한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평가를 통해 파트너십에 대한 유연성, 혁신성과 실험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근린재생 파트너십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린재생 실행 과정에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국내 근린재생에 있어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에 대한 활발한 토의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정주 · 조진희 · 전원식 · 황희연. 2012.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참여주체별 의사결정 영향력 분석: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과정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5권 제2호, pp325-343.
- 김우락 · 구자훈. 2011.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휴먼타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6권 제4호, pp105-120.
- 이연숙 외. 2012. 전주 테스트베드 기법적용연구 제6차연도 연구보고서. 세종 : 국토해양부.
- _____. 2013. 전주 테스트베드 기법적용연구 제7차연도 연구보고서. 세종 : 국토교통부.
- 최호운 · 윤진옥 · 유한중. 2011. “참여적 거버넌스에 의한 낙후 구도심 도시재생: 수원장안문거북시장(느림보타운) 만들기 사례로”. 한국주거학회지 제6권 제2호, pp19-34.
- Atkinson, R. 2003. “Addressing Urban Social Exclusion through Community Involvement in Urban Regeneration”. eds. Rab, Imrie. and Raco, Mike. in *Urban renaissance?* Bristol, UK : The Policy Press. pp101-119.
- Carley, M., Chapman, M., Hastings, A., Kirk, K. and Young, R. 2002. *Urban Regeneration through Partnership: A Study in Nine Urban Regions in England, Scotland and Wales.* Bristol, UK : The Policy Press.
- Coaffee, J. and Deas, L. 2008. “The Search for Policy Innovation in Urban Governance: Lessons from Community-led Regeneration Partnership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vol.23, no.2. pp167-187.
- DCLG(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8. “Communities in Control: Real People, Real Power”. *The White Paper.* UK : DCLG.
- _____. 2010. *Decentralisation and the Localism Bill: An Essential Guide.* UK : DCLG.
- Evans, J. P. and Jones, P. 2008. “Rethink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mbiguity, Creativity, and the Shared Territory”.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40, no.1. pp1416-1434.
- Geddes, M. 1997. *Partnership Against Poverty and Exclusion?* Bristol, UK : The Policy Press.
- Healey, P. 2005.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Hampshire and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 Kort, M. and Klijn, E. H. 2013.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 Urban Regeneration: Democratic Legitimacy and Its Relation with Performance and Trust". *Local Government Studies* vol.39, no1. pp89-106.
- Lever, J. 2011. "Urban Regeneration Partnership: A Figurational Critique of Governmentality Theory". *Sociology* vol.45, no.1. pp86-101.
- Mackintosh, M. 1992. "Partnership: Issues of Policy and Negotiation". *Local Economy* vol.3, no.8. pp210-224.
- Roberts, P. and Sykes, H.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London : SAGE Publications Ltd.
- Social Exclusion Unit. 2001.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UK : Cabinet Office.
- Stewart, M. and Snape, D. 1995. *Keeping Up the Momentum: Partnership Working in Bristol and the West*. Unpublished Report from the School for Policy Studies to the Bristol Chamber of Commerce and Initiative.
- Wilson, A. and Charlton, K. 1997. *Making Partnerships Work: A Practical Guide for the Public, Privat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s*. York, UK : Joseph Rowntree Foundation.
-

- 논문 접수일: 2013. 7. 12
- 심사 시작일: 2013. 7. 29
- 심사 완료일: 2013. 8. 9

A Case Study of the Neighbourhood Regeneration Partnership for the Angel Village Festival

Keywords: Urban Regeneration, Partnership, Neighbourhood Regeneration, Governance, Jeonju Test-bed

A co-working partnership approach among various stakeholders and organizations in neighbourhood regeneration has been emphasized to respond effectively to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problems in declining neighbourhoods.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for urban regeneration partnerships build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in neighbourhood regener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artnership to deliver the 'Angel Village Festival' which is one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mes for the Jeonju test-bed. The festival was suggested from a cultural asset called 'a faceless angel'.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implementing the festival, a coworking network with a range of partners has been organized and developed. The partnership was originally designed to be representative of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ed to involve partners from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and the civic sector. The partnership centered at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festival. Based on this case study, the partnership approach in neighbourhood regeneration is expected to facilitate effective responses to challenges, trust building, and capacity building for local communities.

천사마을 축제사업을 통한 근린재생 파트너십 사례 고찰

주제어: 도시재생, 파트너십, 근린재생, 거버넌스, 전주 테스트베드

근린재생에 있어서 쇠퇴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기관들이 협업하는 파트너십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전주 테스트베드 지역의 근린재생을 위한 사업 중 하나인 천사마을 축제사업의 파트너십 형성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근린재생에 있어 파트너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례 연구를 통해 '얼굴 없는 천사'라는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구상된 천사마을 축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온 과정이 분석되었다. 또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부문의 파트너와 파트너십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의 중심에 있음이 분석되었다. 본 사례 연구의 실증적 결과에 근거해, 향후 국내의 근린재생에 있어 파트너십의 강조를 통해 근린재생 과정상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협력적 신뢰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 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